

“민생경제 위기 극복·삶의 질 향상”

광주 5개구 민선 8기 본격화 관광·복지·문화·안전 도시 등 주민 중심 주요 구정 방향 제시

민선 8기 광주 5개 구정장들이 민생 경제위기 극복·삶의 질 향상 등 주요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비전으로 제시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내 결에 구정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5대 구정 방향으로는 ▲마을 중심 자치 도시 ▲골목 중심 경제 도시 ▲사람 중심 복지 도시 ▲생태 중심 안전 도시 ▲행복 중심 문화 도시를 제시했다.

김 서구청장은 “무너진 지역 경제, 활력을 잃은 골목 경제를 살리고자 18개 동마다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소통 테마 길을 조성하고 이를 골목상권과 연결하겠다. 사람·마을·경제가 상

생하는 골목 중심 경제도시 서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제와 관광·복지·안전·인문 분야에 구정 역량을 집중,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6대 공약으로 ▲혁신 경제 도시 ▲희망 자치 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자연순환 선도 도시 ▲안전·안심·안락한 도시 ▲인문 도시 완성을 내놓았다.

임 구정장은 “올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 100억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충장로와 금남지하상가가 가지고 있던 호남 최대 상권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며 “동구에 입점한 90여 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발맞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 8기 청사진으로 ▲위기에 강한 북구 ▲생활의 품격이 보장되는 북구 ▲지속발전 가능한 북구 ▲공정한 배려가 있는 든든한 북구 등을 꼽았다.

문 북구청장은 “위기에 강한 도시를 만들고 자 소상공인 회복 상생 자금 조성, 상권 르네상스 운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등을 추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사회 주택 유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공정하고 배려 있는 포용복지 모델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 대표 경제도시 ▲공교육을 강화한 교육문화 도시 ▲세대와 계층이 고루 잘 사는 복지 도시 ▲사람과 환경이 중심 되는 안전 도시 등 4대 도시 비전을 내세웠다.

김 남구청장은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백운광장·양림동 일대 뉴딜사업과 대촌동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의 비전을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로 삼았다.

박 광산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성장장과 실업,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끝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황폐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쌀 10만톤 추가매입 시장격리

내달 말까지...쌀값 안정세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2021년산 쌀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쌀의 초과 생산량은 27만톤으로,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전량 매입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 결정은 현재 쌀 소비가 부진해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확기에 산지 유통업체가 농가에서 벼를 더 원활하게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하고 내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민단체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중협)는 이와 관련해 “농업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

지 않은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깊이 감사한다”며 “쌀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뒤늦은 추가시장 격리 결정은 만사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선 2차례 시장격리를 통해 역공매 방식의 허점을 확인한 만큼, 3차 시장격리에선 반드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약 30만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요구해왔다.

윤 의원은 쌀 가격 폭락은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무너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을 경고하고, 2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시장격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5·18기록관, 흠어진 기록물 모은다

내년까지 통합DB 구축 속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이달부터 5·18기록물 통합DB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3개년 사업으로, 2020년 총 예산 90억원(국비 45억원)이 소요되는 ‘통합DB 구축사업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기록물 DB 구축 공정관리프로그램 개발, 5·18기록물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축, 기록물 DB 작업과 인공지능 문자식별(AI-OCR) 등을 진행했다. 특히, 종이류 총 154만 여면, 시청각류 2,411점을 DB화하고, 인공지능 문자식별(AI-OCR)은 3억 자(1억 여 단어)를 작업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기록관과 유관기관의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하고 중요기록물 DB화 작업을 진행하고, 기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록물 검색을 위한 시소러스와 전자레코드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기록경영시

스템 국제표준 아이에스오(ISO)30301 인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록관뿐만 아니라 5·18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유관기관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록관은 2차년도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6월 30일 기록관에서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기록물 통합 DB 대상 유관기관 및 단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악어디지털 컨소시엄, 알앤소프트, 비온시이베이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DB 구축사업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3차년에는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그동안 기록물 보존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록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5·18기록물 통합 DB 구축사업이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배식 봉사하는 김병내 청장 지난 1일 광주 남구청 구내식당에서 김병내 청장과 아내 윤지영 여사가 직원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남구 제공

시,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설문조사

31일까지 홈페이지서 진행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데이터 활용 주체인 시민·기업 등이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간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 인지도, 활용 내용, 개선방향 등이다. 설문에서 수렴된 의견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데이터 축적 분야 선정 등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또 광주시는 본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2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상시수요조사 창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개방 의견을 연중 수렴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구, 지역안전지수 등 30개 분야, 약 8만 5,000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 234억 지급

전남도는 2022년 제2회 정부 추경에 편성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일반택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고속, 시외, 시내·농어촌) 운수종사자 7,78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234억 원을 지난달 30일 일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시지원금 지급으로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총15회, 4만 4,204명, 536억 2,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고통을 덜어줬다.

특히, 전남도는 도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별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운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이고고를 겪는 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업체와 종사자가 더욱 많은 지원을 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7월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회환 75,000원 재사용 회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림 박배성 302-0316-649511